

아동문학 번역서의 대상 독자 변경: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한영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안수경(한국의외국어대학교)

1. 서론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와 더불어 한국문학의 3대 수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국내 아동문학 작품이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안수경, 2021, p. 103). 본 연구는 『마당을 나온 암탉』 작품이 아웃바운드 번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직역과 중역이 함께 나타났음을 추적하였던 2021년 연구의 후속연구로, 한국어 원작(Source Text, 이하 ST)과 영어 번역서(Target Text, 이하 TT)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영어와 같은 중심어 번역서의 존재유무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동시에 영어 번역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추후 다른 언어의 번역서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

* 본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9230).

본 논문은 2022년 1학기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어린이청소년문학 수업의 기말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였다. 논문 구상 단계에서 조언해주셨던 성송은 교수님,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의 논문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였다.

특히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국내 아동문학 텍스트가 번역 과정에서 성인 문학으로 대상 독자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이고 드문 사례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영어 번역서의 판권을 가져간 출판사 펭귄 클래식은 주로 성인 대상의 문학을 다루는 출판사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번역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13세 전후로 읽는 작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주제와 철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지 13세 전후의 독자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출판사 편집장은 성인 문학으로 번역서를 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이재훈, 2012; 임지선, 2013; 한운정, 2013)1). 이후 영어번역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가인 김지영이 맡았다고 소개한다2).

본 연구에서는 한영번역 과정에서 아동문학 도서가 성인 도서 출판사로 수출된 점을 눈여겨보았다. 스코포스 이론에 따르면 대상 독자의 변경은 번역 과정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Nord, 1997, p. 60). 스코포스 이론에서는 번역의 내용이 번역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번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번역 독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도서가 성인 도서로 수출이 되었다는 건 해당 도서 번역의 목적이 새롭게 설정되었음을 뜻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을 기반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의 대상 독자 변경이 번역 과정에서 여러 측면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텍스트 내용과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

-
- 1) 국내 저작권 대행사인 KL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관련 인터뷰에서 판권이 펭귄 출판사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출판 담당자가 인터뷰 말미에 ‘어른에게, 또 어린이에게 읽혀지며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덧붙이긴 하였으나(윤빛나, 2013), 앞서 성인을 위한 도서로 출간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전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 또한 성인 문학으로 번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TT의 대상 독자 변경과 관련하여 김지영 번역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사 내용으로 보아 출판사가 작품을 선정할 때부터 성인 문학으로 번역서를 출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본 연구에서는 번역가는 이러한 의도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번역을 진행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타났는지 그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번역서가 출판사의 의도에 따라 성인 문학으로 번역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번역 과정에서 ST가 가진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징이 일부 사라졌을 수 있는데 ST와 TT를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를 짚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수많은 문학 작품의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 주는 함의를 탐구해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2.1 아웃바운드 번역과 영어 번역서

최근 한국문학 작품의 수출 과정을 살펴보면 ST에서 TT로 직역(direct translation)된 경우와, ST와 TT 사이에 매개 텍스트(mediating text)를 토대로 중역(indirect translation)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성승은, 2020, p. 155; 안수경, 2021, p. 110). 특히, 한국어와 같은 주변어(peripheral language) 문학 작품의 경우 중심어(central language) 번역서가 출간되었을 때 해당 번역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대표 중심어 번역서의 출간은 해당 문학 작품이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 되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언어로 중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근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Marin-Lacarta 2018, p. 307). 예컨대 중심어 외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려고 할 때, 여러 한국문학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번역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심어 번역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작품의 번역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역은 초기에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번역 인력이 없을 때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언어 구사자의 수치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한국어와 중심어 언어 쌍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좋은 번역 인력이 다수 있지만, 한국어와 다른 주변어를 직접 번역하려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중역이 이루어지고 있다(Ringmar, 2007). 그중에서 중역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언어 간의 위계에서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Pi ta, 2019). ST와 다양한 언어의 TT 사이에 매개어가 중심어인 경우 해당 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 현상과 우위에 따라 중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어·불어·독일어 등의 중심어로 번역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해당 저자의 작품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관행이 있다(Marin-Lacarta, 2018; Ringmar, 2007). 예컨대 한국어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었다면, 해당 작품은 영어를 매개어로 다시 다른 언어로 중역되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수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아동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 아동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가장 기본이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권인경, 2012, p. 16).

『마당을 나온 암탉』의 경우에도 2000년에 국내에서 도서가 출간된 이후 가까운 중국과 일본, 그 외 일부 다른 국가에서 번역서가 출간되었지만, 2013년 영어 번역서의 출간 이후 영어 텍스트를 매개로 다수의 다른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졌다(안수경, 2021, p. 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서의 번역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영어에서 중역되었던 아랍어 번역을 분석했던 곡순례(2018) 연구에서는 영어 매개본을 함께 살펴보고 있으나(p. 103), 결론 부분에서 온전히 한국어와 아랍어의 차이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영어번역은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p. 116-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영어 번역서에 나타난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2 스코포스 이론과 아동문학

1980년대 초 독일에서 번역의 목적에 관심을 두면서 번역학에 스코포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스코포스는 ‘목적’과 ‘목표’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ST에 근거한 일종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번역 과정을 번역 행위로 보는 시각이다(Vermeer, 1989/2000, p. 221). 번역이라는 행위가 잘 이루어지려면 번역의 목표를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스코포스 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스코포스 이론은 주로 비문학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문학 텍스트에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간주했었으나, 신지선(2005)은 아동문학 분야야말로 스코포스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p.

137). 스크포스 이론에서 번역의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독자’를 꼽을 수 있는데(Nord, 1997, p. 12), 아동문학은 독자가 아동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 독자층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문학은 장르의 특성상 교육적 목표가 분명하다. 문체 및 내용 구성에 있어 아동이 읽기에 지루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장면과 표현은 삭제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자의 내용이 모험담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로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우』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쓰였던 영어 소설이 한국어 아동문학으로 번역된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스크포스 이론을 한국어 ST의 아웃바운드 번역에 적용하여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아동문학 장르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기 때문에(손영도, 2020, p. 233; 안신애, 2018, p. 2), 학계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영한번역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문학의 주요 특징인 이중독자 관련 연구는 대부분 그림책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한번역을 주로 연구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ST의 주 독자층과 다르게 TT의 대상 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아동문학과 관련된 대상독자의 변경 사례는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인 문학 작품을 아동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번역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의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후 번역서가 인기를 얻게 되면 해당 작품을 아동문학으로 새롭게 번역하여 출간할 수 있다. 본래 ST가 성인 문학이었고, TT도 성인 문학이었지만, 아동이라는 새로운 독자를 고려한 신규 TT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내 연구 중에 외국의 성인 문학을 국내 아동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아동문학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이때 변경된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새로운 번역서가 얼마나 친절하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성승은(2005, p. 70-71)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번역서 중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한 번역서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번역서의 번역전략을 분석하였다. 역자 서문, 문장 길이, 부연설명, 어휘, 언어유희를 포함한 몇 가지 특징을 비교하여, 아동 번역서에서는 격식성을 낮추고, 아동 독자를 배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미라(2009, p. 109)는 그림 형제의 문학 작품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의 성인 대상 번역서와 아동 대상 번역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목과 주석, 말놀이 등을 비교하여 성인과 아동이라는 독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역주의 사용 여부, 한자어, 외래어 등의 어휘 난이도, 역자의 개입 여부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중독자(dual addresses)를 겨냥한 아동문학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중독자란 아동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오이티넨(Oittinen, 2006)은 아동도서를 번역할 때 번역가는 어린이를 위해 번역해야 하지만, 번역 대상 도서 선정부터 번역을 하는 사람까지 모두 어른이고, 구매도 어른이 하기 때문에 이중독자의 특징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동문학이지만, 아동 독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인의 호불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p. 36). 하지만 이중독자를 고려하여 아동과 성인이 함께 읽을 수 있게 쓰인 아동문학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어린이와 성인 독자층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중 독자층에 어필하는 작품의 번역서에서는 어른과 어린이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여 단일 독자층을 목표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신지선(2009)은 성인 대상 번역서와 비교하여 어린이를 위한 번역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규범이론을 근거로 설명하면서(p. 155),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의 ST는 이중 독자층에 어필하는 작품인 반면, 번역서는 어른 또는 어린이 단일 독자층을 대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출판사의 개입으로 번역 과정에서 대상 독자층이 성인으로 변경되었고, 아마존이나 기타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의 작품 분류, 독자 리뷰 등을 읽어보면 영어 번역서는 확실히 한국에서 출판될 때의 아동문학과는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어 번역서에서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징이 일부 사라진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번역서를 온전히 성인 문학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번역서의 서지 정보 분류가 아동문학과 성인 문학 모두에 노출되어 있었고 번역서의 추천 도서 연령층은 7-12학년(국내 중/고등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아동문학인 ST와 성인 문학으로 분류한 TT의 차이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용과 결텍스트 중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대상 독자의 변경이 번역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ST	TT
『마당을 나온 암탉』	<i>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i>
황선미	김지영
아동문학	성인문학
사계절출판사	펍킨 클래식

먼저, 텍스트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출판사의 독자 변경 설정이 번역가의 번역전략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상 독자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주제 부분 중 ‘죽음’을 묘사한 부분을 비교한다. 또한, 성인 문학과 대조되는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징인 어휘 수준, 문장 및 문단의 길이, 텍스트 난이도, 의성어와 의태어 등을 분석하여 영어 번역서가 출판사의 의도대로 성인 문학으로 번역되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출판사의 대상 독자의 변경이 번역서 출간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내 내용 변화와 결텍스트(paratext)⁴⁾ 중

3) teachingbooks.net

4) 결텍스트(paratext)는 주변텍스트(peritext)와 바깥텍스트(epitext) 두 요소로 구성된다. 주변텍스트는 번역텍스트와 동일한 공간, 즉 책 내부에 존재하며, 표지 디자인, 추천사, 삽화, 편집자 주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깥텍스트는 번역텍스트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위치하며, 광고, 서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선희(2015)는 결텍스트, 주변텍스트, 바깥텍스트 번역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이상빈(2017/2023)은 파라텍스트, 페리텍스트, 에피텍스트로 부르기도 한다.

에서 주변텍스트(peritext)의 변화된 요소를 집중분석 해볼 것이다. 주변텍스트는 도서 내에 출판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표지, 삽화, 서지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Genette, 1997, p. 16). 박선희(2015)가 제시한 주변텍스트의 종류(p. 21-22)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주변텍스트의 종류 (박선희 2015를 재구성)

주변텍스트	
저자 주변텍스트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편집자 주변텍스트	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번역가 주변텍스트	번역가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가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가 약력 등
제삼자 주변텍스트	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 해설 등

본고의 곁텍스트 분석 범위는 출판사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주변텍스트로 한정하였다. 저자와 번역가의 소개 글을 포함하여 편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표지 및 삽화, TT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제삼자 추천 문구 등을 살펴볼 것이다.

4. 분석

4.1 텍스트 분석

앞서 TT를 성인 대상 문학으로 출간하겠다는 출판사 측 결정의 근거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었다. 등장인물이 동물이란 점에서 우화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주제와 철학이 넓고 깊다는 점에서 어린이 독자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ST와 TT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ST는 아동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 않으며, TT에서도 이를 대체로 보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주인공의 죽음 묘사 부분(마지막 장)

ST	TT
“자, 나를 잡아먹어라.	"Go on, eat me," she urged.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	"Fill your babies' bellies.”
앞썩은 눈을 감았다.	She closed her eyes.
순간 목이 콧 조였다.	Sprout was suffocating.
무척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마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She had imagined it would hurt, but now all she felt was bone-deep relief.
'나를 몰았구나, 드디어...'	You got me, finally.
눈앞이 캄캄했다.	Everything turned black.

본 연구에서는 주로 텍스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찾아보았다. 내용상의 차이를 보였던 부분을 토대로 TT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다.

표 3

내용상의 차이 (1)

ST	TT
양계장 문이 잘못지 않아서 언제나 문틈으로 아카시아가 보였다. [The door of the farm did not perfectly fit, and it made it possible for her to see acasia flowers through the gap.] ⁵⁾	<u>The door to the coop</u> didn't quite fit its frame; through the gap she could see an acacia tree.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If I can hatch my eggs... I can watch the birth of my chicks...]	Sprout <u>had harbored a secret desire</u> —to hatch an egg and watch the birth of her chick.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양계장까지 들어와 잎싹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The breeze blew their sweet scent into the coop and touched Sprout's heart.]	<u>Their sweet scent caught the breeze</u> and wafted into the coop, filling Sprout's heart.
그러자 털이 송송 빠진 맨목덜미가 빨갭게 드러났다. [Her bare and featherless neck was revealed.]	Her bare, featherless neck was <u>rubbed raw</u> .

텍스트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ST가 아동문학인 점을 고려하여 번역가가 TT를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동화(parable/fable)처럼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위 표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리듬(rhythm)과 시적(poetic) 효과를 표현하거나, 극적(dramatic)인 효과를 활용한 클리셰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영미권 독자들에게 아동문학의 특징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짐작건대 TT를 성인 문학으로 출간하겠다고 출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에서 축소 또는 삭제되었던 아동문학의 특징을 보상하려는 번역가의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보았다.

표 4
내용상의 차이 (2)

ST	TT
그래서 겨울에 찬 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에 비가 들이쳐도 군소리 없이 견디며 살아왔다. (She did not complain about the cold winter wind and (hot) summer rains.)	she didn't complain about the cold winter wind that made it through the gap, or the <u>pelting</u> summer rain.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남자가 외바퀴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The farm door opened and the farmer came in while pushing a wheelbarrow.)	The door opened, and in came the farmer, pushing a wheelbarrow. The hens clucked <u>impatiently</u> , creating a din.
새벽마다 "꼬끼오오!" 하고 외치는 게 수	It fell to him to crow at dawn, and after

5) 역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닭의 일이다. (Shouting "Cock-a-doodle-do" at dawn was his job.)	that he would <u>saunter</u> around the fields with the hen.
---	--

아동문학의 번역 과정에서 어휘의 난이도 또는 문장의 구조나 길이를 조절하는 것은 번역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아동문학의 교육적 목적을 고사한다면 수준 높은 어휘가 반드시 성인 문학에서만 사용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서에 나타난 *pelting*이나 *impatiently*와 같은 일부 어휘는 아동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ST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 있는 어휘를 사용한 부분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번역가는 어휘의 난이도 조절과 관련한 아동문학 번역의 어려움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영번역을 비교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문장의 길이와 문단의 구성이다. ST는 문장의 어절 수가 많지 않고, 단락 길이가 길지 않다. 등장인물의 대화체는 큰따옴표를 활용하여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나 TT에서 이러한 특징이 일부 삭제되었다. 이러한 문장 및 문단 구성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텍스트 내 문장 길이의 변화

	ST	TT	총 증감 수	증감 비율
총 문장 수	2,873	2,459	-414	-14%
총 단락 수	1,150	429	-721	-63%
문장 당 평균 단어 수	6.04	9.12	3.08	50%
문장 내 단어 수 최대값	24	42		

앞서 밝혔듯 ST의 황선미 작가는 아주 짧은 문장을 선호하고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를 담은 직접 화법의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ST는 문장 길이나 단락 길이가 길지 않고 대화문 한 줄을 독립된 문단으로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문장 수와 단락 수를 고려하면 ST의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6개 내외다. 반면 TT에서는 이런 작가의 문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 문단에 여러 문장을 압축해서 번역하였다. TT에서는 문장 수가 일부(14%) 감소한 반면 단락 구성은 63%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한 문단 내 문장 수가 ST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문장당 평균 단어 수는 9개 내외로 여전히 문장의 평균 길이가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장 내 단어 수 최댓값이 42개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나치게 길이가 긴 문장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문장 또는 문단 단위에서 번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문장과 문단의 재구성 관련 예시(1)

어절 수	ST	TT	어절 수
11	들판에서 자란 초록머리에게 집 오리 냄새가 날 리 없는데도 청둥오리들은 초록머리를 경계했다.	Having grown up in the fields, he didn't have to worry about smelling like a domestic duck, but the cord around his foot gave the impression that he had run away from a human, so the wild ducks were wary of him.	42
2	끈 때문이었다.		
9	발에 대인 끈이 사람에게서 도망친 오리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7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Ever since she'd named herself she'd gotten into the habit of noting the events occurring outside the coop: everything from the moon waxing and waning and the sun rising and setting to the animals in the barnyard bickering.	38
5	문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12	달이 차고 기우는 일, 해가 떠오르는 일, 마당 식구들이 아웅다웅 다투는 일까지.		
8	늙은 암탉들은 닭장에서 꺼내져 다른 철망에 한꺼번에 갇혔다.	In a separate wire cage, the farmer and his wife loaded up old hens whose egg-bearing years were behind them but who were	36
7	알을 낳을 수 없을 뿐 건강했기 때문이다.		

8	늙은 암탉들은 모두 트럭에 실렸고 곧 양계장을 떠났다.	otherwise healthy, then loaded them into a truck that drove off the farm.
---	--------------------------------	---

물론 TT의 문장 단위 어절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번역서의 텍스트 난이도까지 어려워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위에 영어 문장의 어절 수는 보통 성인 문학에서도 많이 긴 문장에 해당한다. 문장의 어절 수와 문단 구성으로 보면 영어 문장은 성인 문학으로 번역되었다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및 문단의 구조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7

문장과 문단의 재구성 관련 예시(2)

ST	TT
처음에는 아카시아에 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At first, she thought the acacia flowers were the only thing there.)	삭제
문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She remembered things great and small occurring outside the coop;)	삭제

표 8

의성어와 의태어 번역 축소 예시

ST	TT
“ <u>꼬끼꼬</u> 아침밥이다!” (Cluck, cluck, here comes breakfast.)	“Breakfast!” (생략)
새벽마다 “ <u>꼬끼오오!</u> ” 하고 외치는 게 수탉의 일이다. (Shouting “Cock-a-doodle-do” at dawn was his job.)	It fell to him to crow at dawn, and after that he would saunter around the fields with the hen. (생략)

마지막으로 ST의 의성어와 의태어 표현은 번역 과정에서 다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의 등장인물은 닭, 청둥오리, 족제비 등의 동물이다. 주인공인 암탉과 주인집의 수탉, 마당을 지키는 개 등의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와 청둥오리와 족제비의 빠른 움직임을 묘사하는 의태어를 비교한 결과 TT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물론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래 한국어에는 수적·질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중요하다(박동근, 2008, p. 12). 반면 영어에서는 한정된 장르와 연령층에서 사용하며 성인 문학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비율은 한국어 대비 매우 적다(김도훈, 2014, p. 34). 그러나 표8의 역번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번역가가 일부 의성어와 의태어를 남겨둘 방법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를 포함하여 번역서 전체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을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을 대상 독자로 하는 스킵포스에 따른 번역가의 선택적 전략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텍스트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번역서의 대상 독자는 출판사의 의도대로 성인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텍스트의 난이도가 무척 어려워지기만 한 것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 대비 TT에서 단락의 길이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표현 방식이나 문장 길이에서는 여전히 아동문학의 특징이 남아있었으며 의성어와 의태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일부 난이도 있는 어휘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텍스트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난이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영어 번역서의 렉사일 지수(lexile measures)를 확인하였다. 영어 텍스트의 렉사일 지수⁶⁾는 미국의 교육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독서 수준 지표로, 영어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해당 도서의 추천 학년 정보를 알려 준다. 소제목 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TT의 렉사일 지수는 400-800L 범주에 포함되는데, TT의 텍스트 렉사일 지수로 본다면 영어 번역서의 추천 독자 연령층을 초등 2-4학년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lexiletest.kr에서 인용

4.2 결텍스트 분석

먼저 저자 주변텍스트를 살펴보면 저자의 소개 내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ST는 국내에서 저자가 어린이와 청소년 문학 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아동문학 작품의 약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저자의 서문은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등장인물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TT는 해외 독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저자를 소개하기 위해 주로 작가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ST와 비교하여 TT에서는 저자의 어릴 적 에피소드를 포함한 교육 약력과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애니메이션 흥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작품 소개를 한다. 40권 이상의 문학 작품을 편찬했으며, 저자의 작품이 성인과 어린이에게 모두 사랑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메시지는 TT에서 삭제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저자 주변텍스트 비교

	ST	TT
저자	황선미: <u>어린이·청소년문학 작가</u> 아동문학 작품 약력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애니메이션 흥행	SUN-MI HWANG: a beloved writer in South Korea more than forty books <u>enjoyed by</u> <u>adults and children alike</u> (생략)
저자 서문	[꿈이란, 내가 이루어 내는 기적] <u>멋진 꿈을 간직한 어린이가 많았으</u> <u>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u> <u>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u> 꿈을 간 직한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주인공 입니다. (등장인물 앞쪽 소개)	×

다음으로 편집자 주변텍스트를 살펴보겠다. 판형과 등장인물 소개, 표지와 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10
편집자 주변텍스트 비교

	ST	TT
판형	15.5*22.5*1.5 (cm)	12.5*21*1.1 (cm)
등인 소개 • 일러기	(저자서문 일부) 닭장에 갇힌 암탉 <u>잎싹도</u>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들판에서 <u>족제비</u> 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u>비참하지 않은</u> 죽음입니다.	This is the story of a <u>hen named Sprout</u> ...opens a window on <u>Korea</u> , where it has captivated millions of readers. ... <u>animal characters—the hen, the duck, the rooster, the dog, the weasel</u> —...such classics in English as <u>Animal Farm</u> and <u>Charlotte’s Web</u> . Sun-mi Hwang’s <u>fable</u> for our times...
표지	 	 #1 International Bestseller More Than 2 Million Copies Sold
삽화		

판형의 크기를 수치로 비교하면 가로·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졌고 종이 재질과 표지 두께의 차이로 ST 대비 TT가 작게 느껴진다. TT는 흔히 포켓북처럼 느껴질 수 있는 크기와 외관이다.

등장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ST는 주인공 일쌍이 족제비에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 즉 책의 가장 중요한 서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꿈과 사랑과 죽음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ST의 특징일 것이다. TT의 경우 이러한 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한국의 문학 작품이라는 사실과 동물들이 주인공임을 밝힌다. 영어권 문학 작품 동물농장(Animal Farm)과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과 비유를 통해 우화적인 요소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표지를 비교해보면 ST는 가슴 쪽에 털이 없긴 하나 주인공이 약자임을 표현했을 뿐 죽음을 전경화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쌍의 발걸음을 통해 꿈의 모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제목을 손글씨로 표현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하였다. 반면에 TT의 표지에서는 흑백 컬러 사용하였고, 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 그림 스타일 등이 어두운(depressed) 느낌을 풍기는 동시에, 죽음(death)을 전경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주제로 하는 책 표지의 정석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영어권 독자들은 표지를 통해 해당 책에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삽화의 경우 ST는 컬러 삽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3페이지 중에서 61페이지가 삽화이다. TT는 총 135페이지 중 19페이지 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가 주변텍스트의 경우 물론 TT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김지영 번역가의 이전 번역작품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의 번역한 이력을 밝혔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문학의 3대 수출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김지영 번역가의 한영번역 품질이 우수함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제삼자 주변텍스트를 살펴보기 위해 추천 서문과 추천 문구, 작품해설 등을 비교해보겠다.

표 11
제삼자 주변텍스트

	ST	TT
추천 서 문	×	<p>신경숙 (bestseller Please Look After Mom): ... <u>dream-fulfilling adventures</u> and the longing that underlies love.“ Krys Lee, author of Drifting House: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 <u>South Korea's Charlotte's Web</u> for youth and adults... Kirkus Reviews: ... in the vein of classics <u>like Charlotte's Web and Jonathan Livingston Seagull</u>...will appeal to <u>readers of all ages</u>. Booklist: ...resonate with <u>readers of all ages</u>,... The English translation moves smoothly and straightforwardly and is aided by <u>graceful black-and-white illustrations</u>.</p>
추천 문구 7)	×	<p>Adam Johnson, author of the Pulitzer Prize winner and New York Times bestseller The Orphan Master's son: ... a novel uniquely posied at the nexus of <u>fable</u>, <u>philosophy</u>, <u>children's literature</u>, and nature writing. Lisa See, author of the Pulitzer Prize winner and New York Times bestseller Snow Flower and the Secret Fan and Shanghai Girls: A very special little book. I absolutely loved it, and ...</p>
작품 해설	김서정(아동문학 평론가): 양계장과 마당에서 살던 닭들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

7) 추천 서문은 앞표지 안쪽 본문 바로 전에 위치, 추천 문구는 뒤표지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ST에 없던 추천 서문을 TT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TT를 한국의 살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에 비유하여 유사한 책으로 소개하거나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소개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출판사의 대상 독자 변경 의도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ST가 한국의 아동문학이고 동시에 번역서임을 밝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4.3 분석 결과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 독자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분석 결과

분석 내용		ST	TT
텍스트	어휘	아동	성인
	문장 길이	아동	아동+성인
	문단 길이	아동	성인
	의성어/의태어	아동	성인
결텍스트	저자	아동	아동+성인
	표지	아동	성인
	삽화	아동	성인
	제삼자	아동	아동+성인

정리해보면 한국의 아동문학 『마당을 나온 암탉』은 번역 과정에서 성인 문학으로 바뀐 지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휘 수준, 문장 길이, 문단 구성, 설명과 생략 등을 통해 아동문학의 주요 특징이 사라지긴 하였으나, 일부 리듬을 살리거나 시적 표현 등을 남겨 놓은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영어 번역서는 출판사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성인 문학이지만 우화적인 요소가 담긴 작품이며 어릴 적 읽어보았던 동물농장이나 살롯의 거미줄과 유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결텍스트를 통해 ST가 아동문학임을 직간접

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영어 번역서는 중역을 위한 매개 텍스트라는 점에서 영어번역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성인 문학이 아동문학으로 재번역되는 경우는 빈번한 데 반해 아동문학이 성인 문학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인바운드(번역서 수입)와 아웃바운드 번역(번역서 수출) 과정을 통틀어 이례적인 사례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영어 번역서의 대상 독자가 성인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출판사의 의도가 텍스트와 결텍스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스코프스 이론을 토대로 다수의 연구가 영어권 성인 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아동문학으로 대상 독자를 변경한 것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문학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상 독자를 성인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대상 독자의 변화는 번역전략과 번역 방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 내 문장과 문단의 재구성, 어휘의 선택, 의성어와 의태어 등 번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되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과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표지와 삽화 등 결텍스트의 재구성은 번역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이지만, 이때 대상 독자를 구분하여 아동문학이 반드시 아동문학으로 번역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동문학이든, 성인 문학이든 좋은 작품이라면 영어권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좋은 선택으로 남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웃바운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국내 문학 작품의 아웃바운드 번역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의 대상 독자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 다르게 아동문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번역된 드문 사례를 소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과 관련하여 아웃바운드 번역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문학 작품의 한영번역을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함의가 있을 것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수출 성공과 함께 애니메이션 관련 연구를 주축으로 다양한 분과에서 작품을 분석하였지만, 번역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영텍스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어 번역서를 매개로 중역되었던 다른 언어로 출간된 다수의 번역서 대상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곁텍스트 연구 중에 제외되었던 바깥텍스트 연구, 다시 말해, 독자 반응 연구를 통해 출판사의 대상 독자 변경이 문학 작품의 수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국내 아동문학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안신애, 2018, p. 2), 아동문학 연구의 언어 방향도 영한번역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문학의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는 학계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출발 단계에서 있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대상 독자층의 변화로 한국 문화와 문학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번역서를 출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출판사의 다양한 판매 전략과 함께, 앞으로 국내의 유수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황선미. (2000). *마당을 나온 암탉*, 서울: 사계절.

Kim, Jiyoung. (2013).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US: Penguin Books.

<2차 자료>

www.kci.go.kr

- 곽순례. (2018).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랍어 번역에 관한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22(3), 93-120.
- 권인경. (2012). 아동문학의 한영 번역전략 연구. 동화와 번역, 23, 15-40.
- 김도훈. (2014).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번역학연구, 15(1), 25-50.
- 박동근. (2008). 한국어 흉내말의 이해. 연락.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겹텍스트: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성승은. (2005).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 연구-<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7(1), 69-98.
- 성승은. (2020).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에서 중역과 저본의 영향. 동서비교문학저널, 53, 149-174.
- 손영도. (2020). 영미 아동소설 작품의 한국어 번역 실태 연구. 한국학연구, 74, 215-239.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시 스크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 6(2), 125-140.
- 신지선. (2009).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141-159.
- 안미라. (2009). 대상 독자층에 따른 번역전략의 차이—그림형제 동화 번역 비교분석. 통번역학연구, 13(1), 107-125.
- 안수경. (2021). 한국아동문학의 아웃바운드 번역에서 나타난 직역과 중역: 아동문학 『마당을 나온 암탉』 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5), 99-120.
- 안신애. (2018). 한영 아동문학 번역에 대한 독자 수용 연구: 미국기반 리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윤빛나. (2013. 9. 24).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펭귄그룹 통해 영문판으로. 독서신문.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14>
- 이상빈. (2017/2023). 생각을 키우는 번역학 수업.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 이재훈. (2012. 4. 15.). ‘마당을 나온 암탉’ 미국에서는 어른동화, 판권수출. 뉴스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446967?sid=104>
- 임지선. (2013. 11. 25).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미국서 출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12653.html>
- 한윤정. (2012. 5. 20). 미국서 통할 대표작가 15명 번역지원해 문학한류 타진.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205202200495>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No. 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in-Lacarta, M. (2018). Mediated and marginalised: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in Spain (1949-2010). *Meta*, 63(2), 306-321.
- Nord, C. (1997/2014).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Routledge.
- Oittinen, R. (2006). No Innocent Act: On the Eth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J. Van Coillie, & W. P. Verschueren (Ed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pp. 35-46). St. Jerome.
- Pi ta, H. (2019). Indirect translation: Main trends in practice and research. *Слов о. ру: Балтийский акцент*, 10(1), 21-36.
- Ringmar, M. (2007). Roundabout Routes: Some Remarks on Indirect Translations. In Selected papers of the CETRA research seminar in translation studies (pp. 1-17). URL: [www. arts. kuleuven. be/cetra/papers/files/ringmar. pdf](http://www.arts.kuleuven.be/cetra/papers/files/ringmar.pdf).
- Vermeer, H. J. (1989/2000).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21.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for new audiences: A case study of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Sukyoung An (haengbok20@naver.com)

Department of EICC,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i-Young Kim's translation of "Madang eul naon amtak"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a renowned work by South Korean author Hwang Sun-mi. Originally written as children's literature, the Korean text was adapted into an English literary work targeting adult readers. Published by Penguin Classics, a leading publisher of adult literature, the translation incorporates features intended to appeal to an adult audience. Using the *skopos* framework,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al and translated texts, focusing on both textual features (e.g., sentence lengths and onomatopoeic expressions) and peritextual elements (e.g., cover art and author presenta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some of the author's distinctive styles, such as the use of short sentences, have been lost in translation, with paragraphs restructured and lengthened to cater to an adult readership. However, some peritextual features of the translation, including blurbs and endorsements, demonstrate that the translation retains traces of its origins as a children's book.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 to reach new international readerships through strategic adaptations.

Keywords: Korean children's literature; outbound translation; *skopos* theory; target readers; text and peritext analysis

키워드: 한국 아동문학, 아웃바운드 번역, 스키포스 이론, 대상독자, 텍스트와 결텍스트 분석

안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EICC)학과 강사

haengbok20@naver.com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